

「건설산업과 정책」 창간호에 부쳐

최근 뉴노멀(new-normal)이라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 흐름 속에 우리나라 또한 산업 전반의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 지능, 빅데이터 등의 파괴적 기술 혁신이 산업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됨에 따라 기존의 방법과 패러다임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또한 최근 민간 부동산시장의 호조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정부의 주택 대출 규제와 공급 과잉 우려로 인해 민간부문의 성장세가 언제 꺾일지 모르는 상황이며 공공부문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해외 건설시장도 유가 급락으로 인한 중동 국가의 수주 절벽과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익성 문제로 올해 해외 수주가 전년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이 뉴노멀 시대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과거를 뛰어넘는 혁신'이 가장 필요합니다. 건설산업을 대표하는 아이디어뱅크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그동안 매월 건설업계의 현안 진단과 건설·부동산 경기 동향 위주로 정보를

“

「건설산업과 정책」은 건설산업의 성장 패러다임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하는 매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는 박제된 잡지가 아닌 독자들의 손끝에 머무는
생명력 있는 잡지가 되겠습니다.

”

제공해 왔던 월간 「CERIK저널」을 폐간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의 변화와 독자들의 니즈에 적극 부응코자 계간 「건설산업과 정책」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진단과 정보 제공으로는 더 이상 건설산업의 지속 성장과 독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하나의 핵심 이슈 중심으로 콘텐츠를 형성하는 ‘특화된 잡지’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새로 발간되는 「건설산업과 정책」은 앞으로 건설산업의 오늘과 내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를 찾아내어 설문조사, 좌담, 인터뷰, 해외 사례, 전문가 오피니언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건설업계에 울림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구원의 고급 두뇌에서 생성되는 지식과 지혜들이 건설산업의 솔루션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변화 못지않게 디자인의 고급화와 시각화 등에 공을 들여 보는 재미도 큰 잡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산업과 정책」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겪고 있는 건설시장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으키고, 건설기업에게 혁신적인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등 건설산업의 성장 패러다임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하는 매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건설산업의 위상과 역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국민 정보지로서의 역할과 정부·업계·학계가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병행하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책장에 꽂혀 있는 박제된 잡지가 아닌, 찢기고 던져지더라도 독자들의 손끝에 머무는 생명력 있는 잡지가 되겠습니다.

변화를 추동하는 가장 큰 요인은 칭찬과 관심이라고 합니다. 200만 건설인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6월 15일

「건설산업과 정책」 발행인 **최삼규**